

'보건간호사회 50년사' 출판기념회

보건간호사회, 국민과 함께한 반세기 역사 재조명

보건간호사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파수꾼인 보건간호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보건간호사회 50년사'가 발간됐다.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는 '보건간호사회 50년사 출판기념회'를 11월 9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역사 편찬 과정을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보건간호사회의 지난 50년을 돌아보는 기념영상이 상영됐다.

양순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간호사회 50년사 국민과 함께 성실하게 달려온 보건간호사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조망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편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반세기에 걸친 보건간호사회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정리한 보건간호사회 50년사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 현장간호의 역사서인 동시에 미래 한국간호를



설계하는 자침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이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0년사 출판을 축하하며 모든 보건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펼쳐질 보건간호사회의 미래가 무지갯빛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보건간호사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50년의 역사를 정리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보건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더욱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건간호사회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보건간호사회 50년사는 △공중보건과 보건간호 △보건간호의 역사 △보건간호사의 현재와 미래로 구성돼 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남북, 보건의료협력 합의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 실시키로

남북은 전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결핵 및 말라리아 등 전염병 진단과 예방치료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1월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하고,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상호 정보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를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둘째로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

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남북 간 보건의료협력에 이목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협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협력은 남북 간 교류 확대에 대비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남북 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우리측에서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병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북측은 단장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과 박철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차사 등 대표단 3명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세계재해간호학회 이옥철 회장 선출

2020년 국제학술대회 서울에서 개최

세계재해간호학회(World Society of Disaster Nursing) 회장에 이옥철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4년이다.

이옥철 신임 회장은 10월 17~19일 독일 브레멘에서 열린 '제5차 세계재해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옥철 회장은 세계재해간호학회 창립멤버이다. 대한재난간호학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옥철 회장은 "그동안 회장직을 수행한 아이코 야마모토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기관회원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재해간호학회(www.wsdn2008.com)는 2008년 1월 22일 일본 고베에서 창립했으며,



세계재해간호학회 이옥철 신임 회장(왼쪽)이 아이코 야마모토 전임 회장과 함께 자리했다.

현재 12개국 간호협회를 비롯한 46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한편 제6차 세계재해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는 2020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고일선 대한재난간호학회장과 학회 이사들은 이번 독일 학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차기대회를 적극 알렸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인사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 채정희 원장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장에 채정희 진료지원과장이 임명됐다. 4급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보건의료원장을 맡게 됐다. 10월 11일자.

채정희 원장은 1985년 한림대(구 춘천간호전문대)를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평창군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종근 몸담아 오며 간호팀장, 방문보건담당, 진료부장 직무대리, 보건사업과장, 진료지원과장 등을 두루 지냈다.



채정희 원장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정을 쏟고,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5.36% 인상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5.36% 오르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8.51%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5.36%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단기보호시설 5.44%, 방문간호 2.63%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4.3%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6만200원 늘어난다.

또한 야간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8.51%로 올해보다 1.13%p 인상을 했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인상하는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과 시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등도 검토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서울시간호사회는 제16회 간호사진전을 용산아트홀에서 개최했다.

간호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당선된 본선 수상작 및 입선작 43점이 전시됐다.

간호사진전 및 UCC공모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진전 △금상 = 'My KUMC GURO History' 내 마음속에 저장(허경옥·고대 구로병원) △은상 = '심쿵의 순간'(윤다인·고대 안암병원) '아빠는 간호사'(임용준·세브란스병원) △동상 = '출동! 응급실 간호사의 여heng스케치'(김미혜·서울의료원) '너만 바라볼게~'(한지연·고대 안암병원) '가르치고 배우는 행복'(홍원기·건국대병원) '한마음으로 손 모아'(이승미·강동경희대병원) '행복한 간호사'(서효숙·대림성모병원) '재미있는 일이 많은 현장'(한수진·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UCC공모전 △금상 = '어린이병원 환자이야기 우리는 간호사 엄마'(이복남·서울시어린이병원) △은상 = '야 너두- 행복한 간호사를 위하여'(차윤지, 김다은, 최고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확행'(권햇살·이대목동병원) △동상 = '행복한 간호사 보람의 하루'(이송이·순천향대 서울병원) '우리들의 소확행'(조범석·대림성모병원) '우리가 행복할 때'(김연희·서울의료원).

한편 간호사진전 및 UCC공모전 수상작은 서울시간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nurse.or.kr)에서 볼 수 있다.

이진숙 기자 jslee@

'행복한 간호사' 간호사진전

서울시간호사회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제16회 간호사진전을 '행복한 간호사' 주제로 11월 5~11일 용산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간호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널리 알리고, 회원들의 재능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매년

2018년 간호역량강화교육

'바리톤 정 경 - 오페라마 토크콘서트'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간호역량강화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간호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명	바리톤 정 경 - 오페라마 토크콘서트
강사	정 경(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 소장)
일시	2018. 12. 6. (목) 14:30~16:00
장소	대한간호협회 대강당
인원	130명(선착순 마감)
교육비	없음
신청기간	2018. 11. 5. (월)~11. 30. (금)

* 본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KNA에듀센터(edu.kna.or.kr) 개인회원 로그인 → 오프라인 RN 교육 → 오프라인 무료교육 '바리톤 정경의 오페라마 토크콘서트' 검색 → 신청

간호사를 위한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지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우수전자거래 인증기업

벤처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중소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원격평생교육 시설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중요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업